

유아 기질과 정서지능 및 또래 유능성간의 관련성

박지영¹, 성연정^{2*}

¹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²전남보육정보센터

The Study on Relation between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Ji-Young Park¹ and Youn-Jung Sung^{2*}

¹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²Dept. Doctoral Course Jeonnam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요 약 본 연구는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전라북도 J시에 위치한 H유치원과 W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유아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첫째,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또래유능성의 일반적 경향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체적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은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의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었으며 성, 기질도 더불어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또래 유능성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analyse the effect of young children's sexuality, ages, tempera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upon the peer competence. The subjects were 250 children from H and W childcare center in J city. Data were analys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re are three specific results. First, a general tendency of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is related with normal distribution. The Second indicated that the peer competence was closely associated with young children's sexuality, ages, tempera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Finally the emotional intelligence was the strongest predictor for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 and sexuality and temperament also notable variables. Therefore, according to this research, a special education program for improvement of peer competence is strongly desired.

Key Words : Young children, Gender, Year,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Peer competence

1. 서론

최근 가족 구조의 변화로 유아발달에 있어 가족 영향력은 감소하고 또래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 취업모나 한부모 가족의 증가와 함께 유아들이 과거보다 더 빠른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에서 구조화된 또래집단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결과 또래와의 관계가 유아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바람직한 또래

와의 상호작용은 효율적인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아개념의 형성과 인지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1]. 또래관계는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2] 이러한 중요성은 유아가 성장하면서 더욱 높아지게 된다.

유아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들[2,3,4,5]에 의하면, 모든 유아가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되거나 또래관계에 있

*Corresponding Author : Youn-Jung Sung(Jeonnam Childcare Information Center)

Tel: +82-10-3255-5655 email: sunny0160@hanmail.net

Received October 16, 2012

Revised (1st January 2, 2013, 2nd January 9, 2013)

Accepted January 10, 2013

어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아들이 그렇지 않은 유아들보다 성장 후에 심각한 부적응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많은 유아들이 따돌림등과 같은 또래관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아의 적절한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즉, 또래관계 있어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때 또래 유능성은 형성될 수 있으며, 이후 유아기 및 성인 사회에서 성공적인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래 유능성이란 또래와 사회적 관계에서 성공적으로 기능하는 것으로[6],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함께 놀이하고, 우정을 나누며,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문제 발생 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타협하는 등의 사회적 기술을 나타낸다[7]. 또래 유능성이 발달된 유아는 또래 집단에 잘 수용되며, 유아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교적 능력과 다른 유아를 잘 도와주고, 사이 좋게 잘 지내며 갈등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사회적 능력, 그리고 놀이를 능동적으로 제안하고 이끌며 유아는 유사한 지위에 있는 또래와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역할과 행동을 보다 주도적인 행동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8-11].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들 간에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으로 유아의 성별이나 기질 등을 들 수 있다[12-14] 개인차의 본질적 요소로 주목되어 온 기질은 개인의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의 특징적 방식으로서 활동수준, 사회성, 과민성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며[12],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의 특유한 적응행동을 나타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13]은 유아기의 기질특성이 또래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또래 유능감에서의 개인차는 유아기의 기질 특성과 사회적 경험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였다. 이처럼 기질은 유아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질과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반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기질간의 관련성이 없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 [15-20]은 아동의 성과 기질 유형에 따라 사회적 능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지만 또래 유능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환경적 요인에만 제한하여 설명하기 보다는 생물학적 가능성에 근거한 개인차의 특성으로 유아의 기질과 또래유능성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21]는 유아의 정서지능을 ‘자신 및 타인의 정서를 지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으로 개인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정서지능이 높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21], 오히려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안정된 정서 상태로 회복하려고 행동하며[22] 또한 유아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조절하여,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대처할 수 있는 능력[23]은 유아의 또래 유능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정서지능이 뛰어난 유아들에게서 높은 친사회적 행동이 관찰되며 자아개념 및 대인간 문제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또래간의 관계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24,25].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유아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조절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다. 유아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까지도 인식하여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한다. 또한 -최근 들어 인간의 성공적 발달이 지적지능만으로 설명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사회부적응 현상은 사회성 향상과 정서지능 대한 교육이 병행되었을 때 해소될 수 있으며 특히 유아기 때 정서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는 연구는 또래유능성과 정서능력과 관련된 연구[24,25,26,27,28],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연구[16,18,17]들이 이루어져 있으나 유아의 기질과 성별,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를 함께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또래유능성과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라는 개인 발달 특성간의 상호적 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유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적합한 개별화된 처치를 가능케 함으로써 교수-학습방법 향상을 위한 실제적 유용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 또래 유능성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2.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H유치원과 W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 4, 5세 유아 250명을 선정하였다. 연령별 구성은 3세 96명, 4세 82명, 5세 72명이었으며,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Table 1] Research object

Years	Gender	Boys	Girls	Total
		M(SD)	M(SD)	M(SD)
3		53.26(3.33)	52.16(3.73)	52.70(3.57)
4		65.44(3.74)	65.23(3.35)	65.33(3.53)
5		77.11(3.62)	76.16(4.02)	76.63(3.94)

2.2 연구도구

2.2.1 유아의 기질 측정도구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NYLS(뉴욕총단연구)의 9개 기질차원을 요인분석하여 Chun(1992)이 개발한 「연구용 기질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29]. 이 도구는 적응성(10문항), 활동성(9문항), 생리적 규칙성(4문항), 반응성(6문항), 정서성(4문항) 등 5개 하위요인으로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에 대한 높은 점수의 의미는 적응성의 경우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음을, 활동성은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함을, 생리적 규칙성은 수면이나 식사에 관련된 생리적 주기가 규칙적임을, 반응성은 자극에 대한 민감한 정도와 반응이 강함을 의미하며, 정서성은 반응에 수반되는 정서상태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며, 도구의 Cronbach α 값은 적응성 .64, 활동성 .78, 생리적 규칙성 .72, 반응성 .78, 정서성 .79, 전체 .68로 나타났다.

2.2.2 또래 유능성 검사 도구

또래 유능성 검사는 Park & Rhee(2001)가 개발한 취학 전 아동용 또래 유능성 척도를 사용하였다[7]. 이 도구의 하위영역은 사교성, 친사회성, 주도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하위 영역별로 5문항씩 전체 15문항이며 5단계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유아의 또래관계를 객관적으로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담임교사가 문항별 내용을 관찰에 의해 일과 후에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사교성 .82, 친사회성 .78, 주도성 .85, 전체 .87로 나타났다.

2.2.3 유아 정서지능 평정 도구

유아의 정서지능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Mayer & Salovey(1990)가 사고와 지적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시[21]한 정서지능 모형을 근거로 Lee(1997)가 제작한 정서지능 척도를 사용하였다[22]. 검사도구는 자기인식(7문항), 자기조절(8문항), 타인인식(7문항), 타인조절(9문항)으로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α 값은 자기인식 .91, 자기조절 .85, 타인인식 .82, 타인조절 .83, 전체 .89로 나타났다.

2.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은 2012년 6월 4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루어졌다. 일차적으로 연구자와 교사들이 2회에 걸쳐 유아의 기질, 또래 유능성, 정서지능에 대해 질문지를 숙지하고 각 문항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교사들 간의 일치도를 구하기 위해 연구대상이 아니면서 같은 시간에 측정할 수 있는 동일반 유아 5명을 대상으로 각 질문지 내용을 평정하였다. 최종적인 검사자간의 일치도는 .89로 나타났다. 다음 단계는 각 유치원의 3세, 4세, 5세 담임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소개하고 평가척도에 응답하는 지침을 설명한 후 해당 학급에 속한 유아들의 기질, 또래상호작용에 대해 평정하도록 하였다. 이때 교사에게 각 항목에 대한 평정은 1회 관찰결과가 아니라 최근 1개월 동안 유치원에서 유아의 평균적인 일상행동을 중심으로 평정하였다.

2.4 자료 분석

유아의 개인변인이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교사 관찰법과 검사법을 통해 수집된 연구자료를 가지고 SPSS 19.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구성요소 및 전체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 기질, 정서지능, 또래유능성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의 관계

및 영향력을 살펴보기 전에 이들의 기초가 되는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General tendency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M	SD	Skewness	Kurtosis	Score range
Temperament	100.59	10.97	.23	.03	6-24
Emotional intelligence	105.86	15.88	.11	.65	9-36
Peer competence	52.16	6.43	.34	-.10	7-28

기질의 평균점수는 100.59, 표준편차는 10.97, 왜도는 .23, 첨도는 .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지능의 평균점수는 105.86, 표준편차는 15.88, 왜도는 .11, 첨도는 .65의 분포를 이루었고, 또래유능성의 평균점수는 52.16, 표준편차는 6.43, 왜도는 .34, 첨도는 -.10으로 나타났다. 왜도의 절대값이 3을 초과하고, 첨도의 절대값이 8을 초과하면 정규성의 가정을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30]. 따라서 이 연구 자료는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3.2 유아 개인변인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

유아의 개인변인인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er competence and gender, age,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Peer competence Personal variables	Sociability	Pro-sociality	Initiativeness	Total	
Gender	.15*	.15*	.25**	.21**	
Age	.17**	.12	.07	.13*	
Temperament	Adaptation	.23**	.18**	.21**	.23**
	Activity	-.05	-.09	-.19**	-.12
	Biological regularity	-.22**	-.23**	-.15**	-.22**
	Response	.30**	.25**	.28**	.31**
	Emotional	-.03	-.06	-.15*	-.09
Total	.17**	.10	.08	.13*	
Emotional intelligence	Self-awareness	.46**	.41*	.51**	.52**
	self-regulation	.61**	.52**	.49**	.62**
	Other-awareness	.55**	.48**	.58**	.60**
	Other-regulation	.58**	.55**	.65**	.66**
Total	.61**	.57**	.68**	.70**	

유아의 개인변인에서는 성별, 연령, 기질, 정서지능 모두 유아의 또래유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21, r=.13, r=.13, r=.70, ps<.05$). 즉,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유아 기질의 하위요인에서는 적응성, 반응성은 또래유능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생리적 규칙성은 또래유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기질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유아의 정서지능에서는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52, r=.62, r=.60, r=.66, ps<.01$). 즉, 유아의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도 높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3.3 유아 또래유능성에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

유아 또래유능성에 개인변인인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4] The influence of gender, age, temperament, emotional intelligence for early childhood peer compet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β	t	R ²	ΔR^2	F
Peer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28	.70	15.34***	.49	.49	123.46***
	Emotional intelligence	.31	.76	15.80***	.51	.02	73.80***
	Temperament	-.10	-.16	-3.38**			
	Emotional intelligence	.30	.74	15.17***			
	Temperament	-.10	-.15	-3.14**	.52	.01	52.49***
Sociability	Gender	1.18	.09	2.02*			
	Emotional intelligence	.09	.62	12.22***	.38	.38	149.24***
Pro-sociality	Emotional intelligence	.90	.57	10.80***	.32	.32	116.74***
	Emotional intelligence	.10	.62	11.04***	.34	.02	62.53***
	Temperament	-.03	-.14	-2.44*			

Initiativ veness	Emoti onal intelli gence	.11	.69	14.70***	.47	.47	216.14***
	Emoti onal intelli gence	.12	.76	15.72***	.51	.04	124.92***
	Temp erame nt	-.05	-.21	-4.28***			
	Emoti onal intelli gence	.11	.74	15.05***			
	Temp erame nt	-.04	-.19	-3.99***	.52	.01	88.21***
Gen der	.62	.13	2.79**				

* $p < .05$. ** $p < .01$. *** $p < .001$.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대한 유아 개인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독립변수인 또래유능성이 여러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음으로 요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하는 척도로 분산확대인자(VIF :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활용하였고, 분산확대인자의 범위는 1.04- 1.20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다중공선성을 진단해본 결과 공차와 VIF가 1에 근접하였다. 또한 Durbin-Watson을 살펴본 결과, 1.73-1.82로 2에 가까운 수치를 보임으로써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가장 적합하며 서로 간에 독립성이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정서지능이 49%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아 또래유능성과 정서지능과의 관계에서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기질이 추가되어 2%의 영향력을 부가하였으며, 정서지능은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고, 기질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성이 추가되면 1%의 영향력을 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지능과 성은 정적 예측관계를 보였고, 기질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사교성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이 38%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친사회성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이 32%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기질이 2%의 설명력을 부가하였다. 주도성에 대해서는 정서지능이 47%로 가장 설명력이 높았으며 기질과 성이 각각 4%, 1%의 설명력을 부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유아 개인변인 중 정서지능, 기질, 성이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이 또래 유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더불어 기질과 성도 영향력을 부가하는 유의미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만 3세, 4세,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 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관련지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또래유능성은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남아보다 여아가, 연령이 높을수록, 기질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또래유능성의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밝힌 연구들[3,31,32,33]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또래유능성의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과의 관련성이 높아지므로 적절한 시기에 주목하고 그에 따른 교육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아 또래유능성과 기질 간의 관계는 전체적으로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 관계를, 활동성과는 부적 관계가 있었다. 또래유능성의 하위요인 중 사교성간의 관계에서는, 유아의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예측 관계가, 활동성은 부적예측 관계가 있었다. 친사회성의 관계에서는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예측 관계가, 활동성은 부적예측 관계가 있었다. 주도성에서는 반응성과 적응성은 정적예측 관계가 있었다. 즉,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에 대한 적응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적 능력이 긍정적이며, 지나치게 신체적 움직임이 활발할수록 긍정적 사회능력이 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결과는 유아의 기질이 까다롭거나 활동적일수록 유치원 적응[34]과 자기유능감[35] 및 사회적 능력[17], 또래수용도[36], 또래유능성 관계[30,37]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제행동에도 높게 나타난다는 [23]의 연구결과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적응성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높은 활동성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갖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순한 기질은 정서지능 중 자기조절, 타인인식과, 까다로운 기질은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과, 둔한 기질은 자기인식, 타인인식, 타인조절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38]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기질 요인 중 적응성과 반응성 기질은 또래유능성과 정적 상관, 활동성은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힌 [37]의 연구과도 일치한다. [39]의 연구에서도 유아의 기질특성이 부분적으로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즉, 유아가 수면이나 식사, 일상습관에서 규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긍정적이고 유연하며 접근적인 태도를 가진 유아일수록 또래유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는 것을 보여주었다. 유아의 성별이 또래유능성 전체와 하위요인 중 친사회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기질이 외향적일수록 또래유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3]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기의 기질 특성이 또래 집단에서 유아의 사회적 위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밝힌 [40]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즉, 기질적 특성은 사회적 경험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기질은 유아가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질과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은 성과 연령, 기질과 같은 개인변인에 비해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밝힌 [41]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모든 하위요인인 자기인식, 자기조절, 타인인식, 타인조절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엇보다 바람직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에 따른 자신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조절하며 이를 토대로 상대방의 정서에 맞추어 적절한 행동과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수용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수행하기 위해 친사회적 행동들을 보이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기가 높은 유아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42,43], 타인의 기분이나 정서를 빠르게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달래주거나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 유아의 정서적 행동들이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아의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은 또래유능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유능성의 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인 변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정서지능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학습되어지고 발달할 수 있음[44]을 전제한다면 성, 연령, 기질을 고려해 정서지능을 향상시켜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교육적 실천을 수행한다면 유아 또래유능성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변인을 분석한 결과, 정서지능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유능성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밝힌 [45,46]의 연구들과 일치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33]의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이 높을수록 또래유능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밝혀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성별과 기질도 어머니의 또래관계 관리전략과 정서지능을 매개로 또래유능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는 유아 기질 중 사회성, 활동성,

정서성이, 정서지능 중 자기인식과 타인조절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또래수용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44]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뿐만 아니라 유아 기질이 또래유능성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며 적응성과 반응성은 정적 예측관계를, 활동성은 부적 예측관계를 보인 [37]의 연구와 기질의 하위요인 중 활동성이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침을 밝힌 [47]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정서지능에 주목한 [44]의 연구와 정서지능이 사회성, 대인관계기술, 정서표현능력, 사회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48,49,50]과도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도 또래유능성을 증진시키는 데 정서지능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기질과 성이 더해져 그 영향력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유아 정서지능과 기질, 성이 또래 유능성 전체와 주도성, 친사회성, 사교성에 각각 다르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의 또래유능성을 이해하는 데 성, 기질과 더불어 정서지능의 밀접한 관련성과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정서지능이 낮으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위해 정서지능의 발달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또래유능성의 발달을 위해 정서지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강조할 수 있다. 즉, 정서지능의 발달을 도와주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기질과 성도 고려하여 또래유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면 첫째, 본 연구는 유아 또래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유아 개인변인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위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고려해 또래 유능성과 기질 및 정서지능간의 관련성에 대한 변이 과정을 알아보고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살펴보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또래유능성과 관련된 성, 연령, 기질, 정서지능과 같은 개인변인들을 살펴보았으나 체계이론에 근거하여 부모, 교사, 또래와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이밖에도 다양한 요인이 유아 또래유능성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또래유능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경로를 분석하는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Kramer, L., & Gottman, J. M. Conflict and emotions in

-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s. In C. Shantz and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1992.
- [2] Shaffer, R. *Developmental Psychology childhood & Adolescence* (5th ed). Thomas Learning, 1999.
- [3] Park, Ji Young, Kang, Sung Dan, & Kyung Sook The Relations among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Competence, Matern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The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139-162, 2010.
- [4] Kim Yeon, Han Tae-Sook, Jung In-Hee, Park Yeon-Gung, Hwang Hye-Jung, Koo Hyun-Ah,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s of Rearing, Temperament, Cognitive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4), 229-250, 2006.
- [5] Kupersmidt, J. B., Coie, J. D., Preadolescent peer status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as predictors of ex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350-1362, 1990.
DOI: <http://dx.doi.org/10.2307/1130747>
- [6] Howes, T., Peer interaction of young childre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3 (Serial No 217), 1987.
- [7] Park, Ju Hee, & Rhee, Un Hai, Development of a Peer Competence Scale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221-232, 2001.
- [8] Park, Ju hee. Children's peer competence in relation to maternal parenting goals, parenting behaviors, and management strategies of peer relations,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1.
- [9] Yang, In-Ah, The relationship between five-year-old children's peer competence and self-regulation,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2009.
- [10] Choi, Souk lan,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Paju: yangseowon 2005.
- [11] Kostelin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 Gregory, K M.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Theory to Practice*. Thomson Learning, 2005.
- [12] Santrock, J. W. *Child development* (10th ed). New York: McGraw-Hill, Inc, 2004.
- [13]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 Temperament and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ynal*, 31(3), 177-192. 2001.
- [14] Parker-Cohen, N. Y., & Bell, R. Q. .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1988.
DOI: [http://dx.doi.org/10.1016/0885-2006\(88\)90021-X](http://dx.doi.org/10.1016/0885-2006(88)90021-X)
- [15] Lamb, M. E., Hwang, C. P., Brookstein, F. L., Broberg, A., Hult, G., & Flodi, M. Determinants of social competence in swedish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70,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12-1649.24.1.58>
- [16] Chun ,Hui Young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adjustment to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s,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14(2), 17-34, 1993.
- [17] Choi, Mi Suk & Kim, Mi Sook,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Social Competence and Mother's Psychological Life Position ,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2(2), 153-172, 2005.
- [18] Hong, Kye Ok, Temperament and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Sorabol College, 2001
- [19] Mcdonald, K., & Parks, R. D. Bridging the gap: Parent-child play interccction and peer interactive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5, 1265-1277, 2005.
DOI: <http://dx.doi.org/10.2307/1129996>
- [20] Else-Quest. N. M., Hyde, J. S., Goldsmith, H. H., & Van Hulle, C. Gender differences in temperament: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2, 33-72, 2006.
DOI: <http://dx.doi.org/10.1037/0033-2909.132.1.33>
- [21] Mayer. J. D., & Salovey, P. Emotion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1990.
- [22] Lee, Beung Lea, The rel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Attitude of Parent.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Ang University, 1997.
- [23] Kim Yeon, Han Tae-Sook, Hwang Hye-Jung. A Structural Sample of the Effects of Rearing, Temperament, Cognitive Ability, and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24(6), 227-29, 2004.
- [24] Kwon, So Jeong, Relationship between Self-Concept, Prosocial Behaviors and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Major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Wonkwang University 2003.
- [25] Kim, Sun Joo. The relation between preschoolers's emotional intelligence and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bil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2002.

- [26] Yang, Seung-hee. The effects of experiencing humor activities on the creativity, humor appreciation and expression of young children at different levels of emotional intelligenc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3.
- [27] Denham, S. A., & Burton, R. A social-emotional intervention for at-risk 4-year-old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3), 225-24, 1996.
DOI: [http://dx.doi.org/10.1016/0022-4405\(96\)00013-1](http://dx.doi.org/10.1016/0022-4405(96)00013-1)
- [28] Lindsey, E. W., & Colwell, M. J. Preschooler's emotion competence: Link to pretend and physical play. *Child Study Journal, 33*(1), 39-5, 2003.
- [29] Chun, Hee Young. Mother rearing attitude and classification of temperament by children's in Korea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1992.
- [30]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3rd ed.)*. New York: The Guilford Press, 2011.
- [31] Kim, Hyun-Na & Lee, Kyung-Nim.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emotional regulation, mother's parenting behavior and young children's peer competence by children's sex,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5), 2008.
- [32] Park, Ji Young, Kang, Sung Dan, & Kwon, Kyung Sook. The effects of age, sex, temperament, income,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other's social competence on children's peer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5), 359-382, 2010.
- [32] Yu, Jeong Mi, & Kwon, Hee Kyou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s and teachers' demographic variables, teacher-child relationship, child's self-regulation and peer competency among preschool children in early childhood setting.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8*(1), 265-290, 2009.
- [33] Lee, Ji Young, Kang, Sung, Sook, & Lee, Kyung Ok. A study on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gender, tempera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thers' peer management strategies on peer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5), 45-64, 2009.
- [34] Kim, Young Hee. The relationships between temperament, thei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 and adjustment among kindergarten children,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7*(2), 19-32, 1996.
- [35] Choi, Young Hee. The conditional model = differences of child's self-competence by temperament and mother's nurturing behavior,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25*(4), 17-32, 2004.
- [36] Ban, Shin Ja.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Temperament, the Peer Acceptance, and the Home Environment of Childre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0.
- [37] Choi, Mi-Sook. A study young children's information processing styles and peer competence relative to tempera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7*(2), 99-118, 2007.
- [38] Jang, Myoung Ok. Analysis on the variable that has effect on infant's emotional intelligence developmen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Taegu-Hyosung Catholic University, 2000.
- [39] Park, Suk-Kyu, & Lee, Eun-Hee. The effect of a child's personal relationship problem-solving ability and temperament on peer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1), 257-278, 2011.
- [40]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2001.
- [41] Jang, Young Sook. The effect of a child'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elf-regulation on peer competence.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94*-295, 2011.
- [42] Meng, Jeom Ju.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opularity and ability to infer another person's emotion stat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1995.
- [43] Hwang, Eui Myoung, & Park, Chan Ok. Emotional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Seoul: Youngseawon, 1997.
- [44] Hwang, Young Mi, Moon, Hyuk Jun.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variables on peer acceptance of the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6), 1-14, 2009.
- [45] Kim, Yeun Ji. The effects of the emotional education on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Daegu National University, 2004.
- [46] Joen, Min-Sun. A study o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competence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4.

- [47] Cho, Soon Ok. The relationships of temperament, behavioral regulation, emotional competence to peer acceptance of child, *Journal of Young Child Studies*, 11, 63-81, 2008.
- [48] Park, Kung Mi, & Woo, Nam He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solving ability and emotional stability in pre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18(2), 267-282, 1997.
- [49] Park, Young Ae, Choi Young Hee, & Park, In Jeon.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traits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2), 71-88, 1999.
- [50] Cassid, J. & Asher, S. R. Social Functioning and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in Survivors of Pediatric Brain Tumor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1992.
-

박 지 영(Ji-Young Park)

[정회원]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2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박사
- 2008년 3월 ~ 2009년 12월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강사
- 2009년 3월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BK사업단 연구원
- 2012년 9월 ~ 현재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관심분야>

유아문학, 유아교사교육, 유아교육평가

성 연 정(Youn-Jung Sung)

[정회원]



- 2007년 8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석사
- 2010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학 박사수료
- 2009년 3월 ~ 2011년 12월 : 광주대학교 유아교육과 외래강사
- 2011년 3월 ~ 2011년 12월 : 전남보육정보센터 컨설턴트
- 2012년 3월 ~ 현재 : 전남보육정보센터 보육전문요원

<관심분야>

유아수과학교육, 영유아 신체교육